

2016년 7월 13일 [제4강]

에베소서 4장 1절 ~ 4장 32절

3장 까지 구원과 교회의 원리에 관한 내용을 감격스럽게 설명한 바울은 4장 부터는 그러한 원리에 따른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장 1절 - 6절) 성령 안에서 의 하나됨

1.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2.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각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3.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4.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5.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1.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것은 성도들간의 진정한 하나됨의 코이노니아(교제)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격적인 덕목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찾아보세요. 이 덕목들이 깨어질 때, 참된 교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2) 온유함: “절제된 힘”: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조절되어 나타날 때의 상태

(3)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 참지 못하면 관계가 금새 깨진다.

(4) 사랑으로 용납함: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2.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라고 (하나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4-6절) 하나됨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 시제)

(1) 한 몸:

(2) 한 성령.

(3) 한 부르심:

(4)

(5)

(6)

(7)

*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3. 그런데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애를 써야 할까요?.

(4장 7절 - 16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8.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9.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11.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12.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14.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15.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16.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구절 해설]

(4장 8절) 사로잡힌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패배시켰던 악한 영적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4장 9절)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4장 14절) 어린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람과 대조되는 표현이지요. 영적인 어린 아이는 아직 분별력이 떨어져서 쉽게 요동하고 믿음이 굳건하지 못합니다.

4.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5. 에베소서 4장 11절 에 언급된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각 은사의 역할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 (1) 사도:
- (2) 예언자:
- (3) 복음 전도자:
- (4) 목사와 교사:

6.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성도를 준비시킨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2)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3)

7. 하나됨의 교제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하여 튼튼하게 세워지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13-16절)에서 찾아서 정리해 보세요.

(1) (13절)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충만한 경지까지 계속 성숙하여 집니다.

-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2) (14절) 이리저리 흔들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난다.

- 영적인 어린아이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

(4)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4장 17절 - 32절) 그리스도안에서의 새사람: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

17.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18.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19.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22.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24.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25.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26.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27.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28.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29.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30.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31.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32.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8.. 이방인으로 살았던 지난 날의 옛 사람의 특징을 (17-19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1) 허망한 생각으로 산다: 삶의 목표나 방향 감각이 없다.

(2)

(3)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

(4)

(5)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한다.

*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9.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1)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2)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3)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4) 새사람을 입습니다:

10. 새로운 삶의 규범은 ...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1)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2) 화를 내도 죄는 짓지마라.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라.

(3) 도둑질 대신 오히려 궁핍한 사람을 도우라.

(4) 더러운 말 대신에 덕이 되는 말을 하라

(5) 악의를 버리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를 하라.

11. (25-32절)에서는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교훈들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도덕적인 교훈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